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⑰

2015년 7월 29일(수), 14:00~16:00

#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

신 병 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교육→교육자료→강의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1시부터 오신 분 순서대로 대강당 좌석번호가 표기된 교재를 배부합니다. 좌석번호가 없는 교재를 받으신 분은 대강당의 지정 좌석에서 수강하실 수 없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⑪

##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140-797)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309

www.museum.go.kr

인 쇄 (주)계문사 / (02)725-5216

#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

신 병 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들어가는 말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의 최대의 공로자이다. 아니 어쩌면 취중에서 늘상 ‘한고조가 장량(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한고조를 이용한 것’이라고 했듯이 실제 조선이라는 새 국가의 마스터 플랜을 짠 것은 바로 정도전이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였다. 그런 그가 건국 후 7년이 채 못 되어서 이성계의 아들이자 정적인 이방원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그에게는 ‘역적’이라는 불명예가 붙여졌고 이후 조선의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졌다. 고종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하였지만 그의 이름이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1997년에 방영한 사극 ‘용의 눈물’은 혁명가 정도전의 모습을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드라마 정도전은 2014년 방송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14년 상반기 주말 밤에는 대하사극 ‘정도전’이 방영되면서 600여 년 전 고려 왕조를 지키려는 자들과 새로운 왕조 건설을 꾀하는 세력들의 대립을 실감나게 그린 바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인물 정도전과 이성계, 이인임, 최영, 정몽주, 이방원 등 등장인물의 선 굵은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보는 재미를 안겨다 주었다. 사극 ‘정도전’의 후광 덕분에 정도전에 관한 책들이 20~30여 종이 출판되고, 각종 언론에서는 정도전 열풍을 현재의 정치 상황과 언급 하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의 시대에 600여 년 전 인물 정도전이 다시 부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의 삶의 궤적과 새 왕조 건설을 위해 지향한 사상을 통해 이 물음에 다가서 보고자 한다.

## 1. 문과 무의 환상적 결합,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

정도전은 1342년 정운경과 최씨 부인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현재 도담삼봉이 있는 단양 삼봉의 외가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의 근거지가 있던 영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부친 운경이 과거에 급제하여 개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자 부친을 따라 개경에 올라온 후 당대의 지성을 대표했던 이색의 문하에 들어가 정몽주, 이숭인, 이존오 등과 함께 성리학을 배웠다. 부친 정운경이 이색의 부친 이곡과 친밀했던 것도 이색의 문하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정도전이 개경에서 수학할 무렵 고려의 국왕 공민왕은 반원 자주정책을 펴면서 개혁정책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신진엘리트 양성에 적극적이었다. 정도전은 1360년(공민왕 9) 성균관 시험에 합격을 한 후 1362년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생활을 하였다. 이후 부친상과 모친상을 연거푸 당하여 영주에 내려가 3년 상을 치루면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1370년 성균관 대사성이 된 이색의 천거를 받아 성균관 박사가 되었다. 이후 정몽주, 이숭인 등과 성리학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지식인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쌓아갔다. 공민왕의 후원에 힘입어 탄탄한 관직 생활과 학문 활동을 하던 정도전에게도 시련이 닥쳐왔다.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즉위하면서 이인임, 경복흥 등 친원정책을 표방하는 보수파들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정도전은 보수파들의 득세를 비판하다가 1375년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국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 그가 처음 유배되었던 곳은 나주군 회진현 거평부곡의 소재동. 이곳에서 그는 3년간 부곡민들과 생활하면서 농민생활의 실상을 경험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의 유배와 해배가 거듭되었다. 이러한 시련기를 겪으면서 정도전은 사회의 모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은 그의 혁명의지를 불태우는 동력이 되었다.

1383년(우왕 8) 전라도 나주 거평부곡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농민 생활의 참담한 실상을 목격한 정도전은 함주막사로 들어가 동북면 도지휘사로 있던 장군 이성계를 찾아갔다. 이성계는 고려말 거둬드는 외침 속에서 홍건족과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혁혁한 무공을 세우면서 신흥 무인세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특히 1380년 소년장수 이지발도가 이끄는 왜구를 운봉에서 섬멸한 황산대첩은 이성계의 명성을 보다 높이게 한 사건이었다. 고려말의 사회적 모순에 가장 적극적인 비판을 하면서 혁명 의지를 불태우고 있던 정도전의 정치적 야심과 이성계의 군사력이 결합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고려말의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차지하고 있던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세력의 득세로 말미암아 지방의 중소지주와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남방의 왜구와 북방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국가의 위기도 한층 커졌다. 이러한 시기 권문세족의 특권의식과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이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고려 후기 새로운 사상으로 수용된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기득권층의 특권을 견제하고 성리학에 입각한 도덕정치, 왕도정치의 회복을 추구하고 나선 이들이 바로 신흥사대부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신분적으로는 지방의 향리 출신, 경제적으로는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 신흥사대부의 주류를 이루었다. 정도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열혈남아였다.

고려말의 대내외적 위기를 맞아 신흥사대부들도 온건파와 혁명파로 분기되었다. 국내외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이었다. 온건파 사대부는 고려왕조의 태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반면, 혁명파 사대부는 왕조의 교체만이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정몽주, 이색, 길재, 이숭인 등이 온건파였다면,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은 혁명파의 대열에 섰다. 1392년 4월 온건파의 정신적 지주이자 고려왕조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후의 태종)의 지휘로 개성의 선죽교 근처에서 피습됨으로써 권력은 완전히 이성계 일파와 혁명파 사대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때 이방원과 정몽주가 주고 받았던 시조인 ‘하여가何如歌’와 ‘단심가丹心歌’는 이후에도 널리 회자되면서 정몽주를 고려 충신의 대명사로 널리 인식되게 하였다.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정몽주와 길재의 사상이 조선시대 사림파의 뿌리가 된 것도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학자들이 재야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혁명파 사대부의 중심에는 정도전이 있었다. 정도전은 봉화의 향리 출신으로서 아버지 정운경이 관직에 올라 개경으로 진출했으나 외할머니가 노비의 딸로서 그에게는 늘상 천민의 피가 섞였다는 신분적 콤플렉스가 따라 다녔다. 정도전이

급진적 성향을 띤 이면에는 이러한 신분적 성향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 정도전은 1362년 문과에 합격한 후 공민왕대에 관직에 진출하였다. 개혁정치를 계획했던 공민왕은 기존의 권문세족에 맞설 수 있는 ‘젊은 피’ 신흥사대부를 중용하였고 이 때 이색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본격적인 개혁정책을 구상해 나갔다. 그러나 공민왕이 시해되고 우왕이 즉위한 후 권문세족 이인임 일파를 비판하다가 1375년 나주의 거평부곡으로 유배를 갔다. 그러나 유배생활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더 혁명 의지를 불태웠다. 유배에서 풀린 후 본가인 영주, 외가인 단양, 서울 등지를 왕래하던 정도전은 1384년 마침내 혁명을 위한 파트너 이성계를 함주막사로 찾아갔다. 이성계의 명망과 그의 휘하에 있는 군사력이라면 혁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정도전의 ‘문文’과 이성계의 ‘무武’가 조화되면서 역사는 새로운 혁명의 길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신흥무장 이성계와 결합한 정도전은 위화도회군 후 이성계 일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자 신속히 전제개혁(과전법)에 착수하여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고 새로운 왕조에 협조할 관리와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분배하였다.(1391년 5월). 이성계 일파가 새 왕조의 개창을 민심과 천심에 순응하는 ‘역성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대규모 경제개혁 조처였고, 새 왕조 건설은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2. 왕권과 신권의 갈등

위에서 지적했듯이 1398년 8월 조선왕조 건국의 최고 주역 정도전이 피습되었다. 가해자는 바로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후의 태종)이었다. 도대체 무슨 악연이 있었길래 이방원은 정도전을 피습했던 것일까? 조선왕조는 건국 후 국호를 정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으며, 각종 궁궐과 관청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그 실무의 주도적인 역할은 정도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이라는 책을 통하여 조선 건국의 이념적 지표들을 설정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신하의 권력을 강조한 부분이다. ‘국왕의 자질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현명함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국왕의 좋은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 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는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sup>대중</sup>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국왕의 직책은 한 재상을 선택하는데 있다'고 한 것, '국왕의 직책은 재상과 의논하는 데 있다'고 한 것 등은 재상, 즉 신하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조선은 이성계가 왕이 된 이씨 왕조의 국가였다. 따라서 왕권이라는 것은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다. 그러나 건국의 이념을 제시한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같은 재상의 권력이 언제나 왕권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다. 정도전의 이러한 구상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다. 이들의 갈등은 이미 태조의 후계자인 세자 책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조의 첫째부인이자 정비인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전인 1391년에 55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했지만 그녀와 태조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 6명(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이 있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인 계비 강씨 사이에서도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방번과 방석이 그들이다. 계비 강씨는 나이는 어렸지만 당찬 여걸이었다. 1392년 4월 이방원이 정몽주를 격살했다는 보고를 받고 태조가 당황해 하자 ‘공이 언제나 대장군으로 자처하시더니 어찌 이렇게 당황해 하십니까’라는 핀잔을 줄 정도였다. 강씨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조선 건국 한 달 후 인 8월 20일 전격적으로 그녀의 소생인 11세의 방석을 세자로 책봉시킨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석의 세자 책봉은 조선 왕실의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는 싹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본처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믿었던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계모의 처사에 분개했다. 원래 정치에 뜻이 없었던 장남 방우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가 1393년 사망했고, 실질적인 장남이 된 방과와 방원 등은 뿔뿔 뿔렸다.

자질이 일정하지 않는 국왕이 세습되어 전권을 행사하는 왕권중심주의 보다는 천하의 인재 가운데 선발된 재상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펴는 신권중심주의를 주장한 정도전은 방석의 세자 책봉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다.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는 방원과 같은 버거운 상대 보다는 어린 세자 방석이 즉위하면 자신의 입지가 보다 커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세자로 책봉된 방석은 어머니 강씨와 정도전, 남은 등 개국공신의 후원에 힘입어 세자로서의 자질을 익혀갔다. 정도전은 특히 왕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의 혁파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하여 경쟁 관계에 있었던 방원 등의

무력 기반을 해체하고자 했다. 자신에게 서서히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방원에게 기회가 왔다. 계비 강씨가 죽고 태조마저 병석에 눕게 되자 세자로 책봉된 방석의 입지가 점차로 위축되었다. 방원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전부터 단결하고 있던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방원의 주도로 1398년 경복궁 남문에 쿠데타군을 배치한 후 우선 최대의 정적인 정도전의 제거에 나섰다. 그 시각 정도전은 자신의 자택(현재의 종로구청 자리)에서 가까운 남은의 첩 집에서 남은, 심효생 등과 환담을 하던 중 불의의 일격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 정도전에 대한 이방원의 증오는 그의 수진방 자택을 몰수하여 말을 먹이는 사복시司僕寺로 사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정도전을 제거한 후에는 세자 방석을 유배시킨 후 살해하였으니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이다. 이방원과 정도전의 갈등은 1398년의 왕자의 난 성공으로 정도전이 제거되면서 이방원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도전이 주장한 재상이 주도하는 신권중심주의가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한 후 강력한 왕권중심주의를 펼쳤던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으로 어린 세자 위에 군림하면서 재상이 주도하는 왕도정치의 실현을 꿈꾸었던 정도전의 꿈도 역사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후에도 정도전은 역적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조선왕조 내내 신원되지 못하다가 정조대에 그의 문집인 『삼봉집』이 간행되면서 어느정도 그 명예를 벗었고, 1865년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궁의 설계자였던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문헌공이란 시호를 내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그에 대한 재평가작업이 역사, 철학 등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있으니, 지하에서나마 정도전은 실록에 기록된 불명예의 굴레를 어느 정도 벗어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지 않을까?

### 3. 혁명가이자, 이론가

서거정의 『태평한화』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말 정도전이 절친한 벗이었던 이송인, 권근 등과 더불어 각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송인은 조용한 산방山房에서 시를 짓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이라



했고, 권근은 따뜻한 온돌방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 미인 곁에서 책을 읽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정도전은 ‘첫 눈이 내리는 겨울날 가죽옷에 준마를 타고, 누런 개와 푸른 매를 데리고 들판에서 사냥하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꼽았다고 한다. 온화한 인품의 소유자 이승인,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권근과 달리 거친 현실을 돌파할 의지가 강했던 정도전 캐릭터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훗날 조선건국을 위한 설계자로, 건국후 명과의 국경 충돌시에는 직접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요동정벌을 계획했던 강력한 카리스마의 소유자의 그것이었다.

정도전은 뛰어난 혁명가이자 이론가이기도 했다. 조선건국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그의 여러 저술들은 이론가 정도전의 정치精緻한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경국전』은 조선의 통치 이념과 통치조직 전반에 관한 책으로, 정도전이 구상한 조선건국의 모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이다. 중국 『주례周禮』의 영향을 받아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 정전政典, 헌전憲典, 공전工典의 6전 체제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6전의 앞에는 치국의 근본이 되는 정보위定寶位, 국호, 정국본定國本, 세계世系, 교서敎書를 기술하여 인정仁政의 중요성, 조선이라는 국호에는 기자조선을 계승한 문화적 자부심이 깔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보위」에서는 재상중심주의를 강력히 표방하여 조선의 정치 주도세력은 재상에 있음을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결국 그의 죽음을 재촉하는 한 원인이 된다. 6전의 내용은 인사, 재정, 교육, 국방, 형벌, 토목 등에 관한 것으로 성종대에 완성되는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의 밑바탕이 된다.

『경제문감』은 『조선경국전』의 내용 중 「치전」 부분을 보완한 성격의 책이다. 이 책에서도 정도전은 그의 정치적 소신인 재상중심주의를 강력히 피력하였다. 즉 이상시대인 중국의 요순堯舜 시대에는 현명한 재상이 실권을 가지고 제왕을 보필함으로써 이상적인 유교정치가 구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려국사』는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저술된 역사책이다. 정충과 함께 저술했다고 하는 이 책은 현재 전하지는 않으나 서거정의 『동문선』에 서문이 남아 있어서 편찬 동기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불씨잡변』(1398년)에서는 고려후기에 들어 사회적 폐단을 심각하게 노정한 불교의 이론 체계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불교의 교리를 윤회설, 인과설,

심성설, 지옥설 등 10여 편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이 책은 불교 중심의 고려사회에서 성리학 중심의 조선사회로 진전되는 역사발전 과정에서 성리학이 지니는 우월성을 역설했으며,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만큼 정도전이 불교 이해에도 해박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실전의 전투 기술을 정리한 『진법』은 태조 초에 전개한 그의 요동정벌 운동이 결코 허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 4. 한양 천도와 도성 건설의 주역

##### 1) 국호를 ‘조선’이라 한 까닭

역성혁명을 성공시킨 세력들에게는 무엇보다 새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였다. 왕조의 설계자로서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은 옛 조선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다. 단군조선에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천손天孫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함께, 중국의 선진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래한 기자조선에서 도덕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국호였다. 단군과 기자에 대한 인식은 고려 후기 일연의 『삼국유사』나 이승휴의 『제왕운기』 등의 책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전대의 역사의식이 국호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포함되어 신라와 백제 지역의 유민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조선이라는 국호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고조선의 후예라는 민족통일의식이 담겨져 있었다. 이처럼 조선이라는 국호에는 지역성을 극복하고 삼국의 유민들을 모두 포용하려는 민족통합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2) 새 도읍지 한양

나라 이름을 새로 정한 다음에 남은 과제는 새로운 도읍지의 선정이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즉위하지만 개성이라는 곳은 고려왕조의 신하들이 많은 피를 흘렸던 곳이었고 여전히 고려 귀족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었다. 고려왕조 후반이후 개경의 지기地氣가 쇠했다는 설이 유행한 것도 도읍을 옮기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 건국의 주체 세력은 새 수도 건설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1394년(태조 3) 10월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겼다.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양은 이미 500년간 백제의 수도였으며, 고려시대에도 남경이라 하여 주요 도시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남쪽에 한강을 끼고 있어서 수로 교통에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국방상으로도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한 때 새 도읍지로는 한양 이외에 계룡산 일대가 후보지로 떠올랐다. 태조는 2년 2월 정당문학 권중화의 계룡산 길지설吉地說에 따라 계룡산을 답사하고 신도시의 건설 계획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그곳이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치고 풍수학적으로도 불길하다는 정도전, 하륜의 주장에 의해 이듬해에는 백악 남쪽 지금의 서울 성곽 안을 중심으로 하는 새 도읍지를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양이 계룡산을 물리치고 도읍으로 된 데는 무엇보다 수로와 해로의 교통이 편리하여 국가의 조세를 쉽게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한양으로의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풍수지리상 이곳이 약간의 결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을 듣고 태조가 ‘이곳의 형세를 살펴보니 왕자王者의 도읍이 될 만하다. 더구나 조운漕運이 통하고 사방의 이수里數도 고르니 사람들에게 편리하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도읍지는 한양으로 정해졌지만 이때 왕궁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왕사王師인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무학이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자, 정도전은 국왕은 남면南面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북악산을 주산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결국 정도전의 주장대로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었다.

### 3) 경복궁의 완성과 사대문에 담긴 뜻

북악 남쪽의 평평하고 넓은 터에 390여 칸 규모의 새 궁궐이 처음 세워진 것은 1395년(태조 4) 9월 29일의 일이었다. 태조는 같은 날 낙성된 종묘에 4조祖의 신위를 개성으로부터 옮겨 모시고 친히 새 궁궐을 살핀 다음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술이 거나해진 태조는 정도전에게 새 궁궐의 이름과 각 전당의 이름을 짓도록 명하였고, 정도전은 『시경』 「주아周雅」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미 술을

마셔서 취하고 큰 은덕으로 배 부르니 군자께서는 만년토록 큰 복景福을 누리리라’라는 의미로 정궁의 이름을 경복궁으로 정했음을 아뢰었다. 정전正殿인 근정전을 비롯하여, 정무를 보는 사정전思政殿, 침전인 강녕전康寧殿 등의 이름도 이 때에 지어졌다. 태조는 경복궁으로 이름을 지은 지 약 3개월 후 점을 쳐서 길일로 잡은 12월 28일 마침내 이곳에 들어와 살았다. 길하다는 날을 골라서 만든 경복궁, ‘군자 만년 큰 복을 누리리라’는 청송으로 가득했던 경복궁은 태조가 들어가 산 지 채 3년도 못 가서 골육상쟁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비극의 공간이 되고 만다.

경복궁이 완성된 후 뒤 한양에는 종묘와 사직, 4대문과 4소문을 비롯하여, 각 관청 건물들이 속속 갖추어 졌다. 법궁인 경복궁은 주산을 백악산으로 하여 궁궐의 좌측에 종묘를, 우측에 사직社稷을 배치하여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체제를 따랐다. 4대문의 이름은 동서남북의 방위에 따라 각각 흥인문興仁門, 돈의문敦義門, 숭례문崇禮門, 소지문昭智門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유교의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덕목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4대문의 중앙에 설치한 보신각普信閣 또한 ‘신’의 이념을 더함으로써 유교의 5가지 덕목인 ‘인의예지신’이 건축물에 이념화되었다. 1397년 4월에는 한성부 5부의 방명표坊名表를 세우게 하여 동부 12방, 남부 11방, 북부 10방, 중부 8방의 구획이 정해지고 각 방의 명칭도 정해졌다. 새 왕조는 한양에 둘레 17킬로미터의 성곽을 둥글게 쌓고, 그 안에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 종묘, 사직, 관아, 시장, 학교 등을 건설하였는데 산수가 조화된 명당으로서의 풍수지리적 특징을 최대한 살려 도시 구조를 짰다. 북의 백악산, 남의 목멱산(남산), 동의 낙타산(낙산), 서의 인왕산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궁궐과 관아를 배치한 것은 풍수지리에 의거한 것이었다.

신도시의 건설을 주도하고 완성한 정도전은 1398년 4월 「신도팔경시新都八景詩」를 지어 자신의 손으로 완성된 한양의 모습을 찬양하고 대대로 복을 누릴 것을 기원했지만, 이해 8월에 일어난 1차 왕자의 난으로 그가 제거되면서 정도전이 새 왕조를 창건하고 새 도읍지를 정하면서 그 스스로 영원히 복을 누리겠다는 기원은 꿈으로만 그친 채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정도전은 사라졌지만 그가 설계했던 새 도읍지 한양은 조선왕조의 멸망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 5. 역적으로 마감된 최후

1398년 8월 26일 이방원이 지휘한 군사들은 송현松峴(현재의 한국일보사 근처) 남은의 첩의 처소를 급습했다. 정도전과 남은 등이 이곳에서 비밀리에 모여 회합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방원측의 선제공격이었다. 정도전은 황급히 피신했으나, 결국에는 체포되어 방원의 앞에 끌려왔다. 『조선왕조실록』은 그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도전이 도망하여 그 이웃의 판사判事 민부의 집으로 들어가니, 민부가 아뢰었다.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방원은 그가 도전인 줄 알고 사람을 시켜 잡게 하였더니 도전이 침실 안에 숨어있는지라 꾸짖어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말하기를 ‘청컨대 죽이지 마소서, 정안군이 예전에도 저를 살려주셨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소서.’ ... ‘네가 조선의 봉화백奉化伯이 되었는데도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하고 이에 그를 목베게 하였다.”

(『태조실록』, 태조 7년 8월 26일).

실록에 기록된 정도전의 죽음에 관한 부분이다. 조선건국의 주역이자, 설계자였던 혁명아의 말로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서술되어 있다. 아마도 『태조실록』의 찬자들이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운 세력인 만큼 죽음에 대한 왜곡은 어느 정도 예상된다. 고려말 권문세족의 횡포에 맞서 혁명의 열기를 불태우면서 마침내 조선 건국을 성공한 혁명아 정도전이 걸어온 인생역정을 보노라면 방원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정도전의 이러한 비겁한 죽음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실록의 기록 또한 역사의 승리에 의한 기록이란 측면이 다수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인물이 반대 세력의 표적이라면 공정하고 객관적일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의 죽음은 독자들의 상상력에 맡긴다.

조선건국 후 건국의 마스터 플랜은 대부분은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왔다. 한양 천도와 새로운 궁궐의 조성, 종묘와 사직의 배치 등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라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정도전은 새 국가의 구심점을 재상에서 찾았다. 자신과 같이 능력있는 재상이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검증되지 않는 군주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조선경국전』 등에서 피력한 재상중심주의는 그의 정치적 소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철학은 급기야 왕권 강화론자인 이방원과 마찰을 빚게 되고, 1398년 그의 죽음으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이름에는 역적이라는 굴레가 따라 붙었다.

정도전은 조선시대 내내 만고의 역적으로 낙인찍혔다가 고종대인 1865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 경복궁 중건을 주도한 대원군이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1872년에는 후손들의 주도로 경기도 양성현 산하리에 작은 사당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그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그의 시신을 모신 묘역의 존재도 한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유형원은 그가 전국을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지리지 『동국여지지』에서 정도전의 묘소가 ‘과천현 동쪽 18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현재의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해당하는 곳이다.

혁신적인 사상과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조선건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주역 정도전. 건국 이후 그의 삶은 극히 짧았지만 그가 제시한 조선 국가의 모델은 5백년 조선왕조의 기본 골격이 되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장수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그가 추구한 민본 사사상과 도덕정치, 왕도정치를 실현하려 한 모습은 현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도전의 삶을 한 개인의 삶이 아닌 역사적 삶이라 할 수 있는 까닭이다.

## 〈참고 문헌〉

- 한영우, 1999,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조유식, 2014, 『정도전을 위한 변명』, 휴머니스트.  
 조기영, 2004, 『삼봉리더십』, 이치  
 이덕일, 2014, 『정도전과 그의 시대』, 옥당  
 문철영, 2014, 『인간 정도전』, 새문사  
 신병주, 2009, 『조선을 움직인 사건들』, 새문사.  
 신병주, 2011, 『조선평전』, 글항아리.  
 신병주, 2014, 『조선과 만나는 법』, 현암사.

**N o t e**

## 【 2015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 2015년 3월 25일(수)~11월 18일(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 오후 2시~4시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대 상 : 일반 성인 누구나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 시	제 목	강 사	비 고
1	3. 25.	후기 구석기 시대의 예술	한창균(연세대 사학과 교수)	
2	4. 1.	신석기의 개념과 토기의 발생	신숙정(한강문화재연구원 원장)	
3	4. 8.	동북아 청동기문화와 고조선	송호정(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4	4. 15.	신라의 지방문화와 촌락사회	김재홍(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5	4. 22.	테마전 연계 강의 서봉총 출토 금관 이야기	박진일(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과학으로 풀어보는 서봉총 금관 4. 21.~6. 21.
6	4. 29.	최근 발굴성과로 본 가야문화 이야기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 학예연구사)	
7	5. 13.	통일신라의 금속공예	이송란(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8	5. 20.	발해의 문화와 중앙아시아	강인욱(경희대 사학과 교수)	
9	5. 27.	특별전 연계 강의 발원發源, 간절한 바람을 담다. - 불교미술의 후원자들 -	신소연(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발원發源, 간절한 바람을 담다 - 불교미술의 후원자들 - 5. 23.~8. 2.
10	6. 10.	고려시대 개경의 유적과 유물	홍영의(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11	6. 17.	고려전기 불상 : 조각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임영애(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12	6. 24.	기획전 연계 강의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	김용덕(한국외국어대 폴란드어과 교수)	폴란드, 천년의 예술 6. 5.~8. 30.
13	7. 1.	고려시대의 도자 문화	이종민(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4	7. 8.	고려 문벌의 역사적 특징	박재우(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15	7. 15.	조선의 미학, 분청사기	박경자(청주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	
16	7. 22.	조선의 하늘과 과학	안상현(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17	7. 29.	조선의 건국과 정도전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18	8. 5.	조선의 백자	전승창(아모레퍼시픽미술관 관장)	
19	8. 12.	임진왜란과 문화 교류	이상훈(해군사관학교박물관 기획담당관)	
❖ 교육시설 휴지기 등으로 인한 휴강입니다.				
20	9. 16.	조선의 서울 한양 도성의 위상	홍순민(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21	9. 23.	조선시대의 풍수지리와 삶	김두규(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22	9. 30.	기획전 연계 강의 불사리 신앙과 탑의 장엄미	주경미(부산외국어대 동남아지역원 외래교수)	고대불교조각대전 9. 24.~11. 15.
23	10. 7.	기획전 연계 강의 동쪽으로 온 불상	배재호(용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24	10. 14.	조선시대 궁중회화의 세계	박정혜(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	
25	10. 21.	조선 민화의 가치와 아름다움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26	11. 4.	특별전 연계 강의 한국의 신석기 문화	양성혁(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의 신석기 문화 10. 20.~1. 31.
27	11. 11.	조선시대의 가족생활	이종서(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28	11. 18.	근대 시각매체의 도입과 전통미술의 변모	권행가(덕성여대 미술사학과 연구교수)	

※10월 28일 강의는 용산 이전 10주년 행사 관계로 휴강입니다.

※상기 강의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